

얼음 깨기

불 속의 도자기

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든 뒤, 그는 그릇을 뜨겁게 달궜던 가마 속에 넣었습니다. 도자기는 뜨거움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하며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넣나요?”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마에서 나온 그릇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짜 도자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가마 속의 불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릇은 쉽게 깨지고 쓸모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 같은 고난 속에서 단단해 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나눔]

- 방학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행사

9월

- | | |
|-----|-------------|
| 5일 | 향기로운 금요일 시작 |
| 7일 | 진공첫 5기 시작 |
| | 어와나 2학기 개강 |
| 21일 | 풍습기 2기 시작 |

10월

- | | |
|--------|--------------|
| 6-9일 | 추석 연휴 |
| 12-15일 | 가을 사경회 |
| 18일 |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
| 26일 | 종교 개혁 주일 |
| | 진공첫 5기 종강 |

경배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소식

1. 풍습초 이끄미 세미나

진공첫 1-4기까지 수료한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3기 이끄미 세미나를 주일 오후 5시, 노아의 방주에서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9/7 - 9/17, 문의 및 신청 : 지역 담당 교역자

2. 결혼 예비 학교 흠커밍데이

결혼예비 학교 수료자들을 위한 흠커밍데이를 진행합니다.

대상 : 결혼예비학교 1-4기 참석한 모든 분, 일시 : 9/20 오후2시-8시,

장소 : 1층 노아의 방주, 문의 : 천현수 목사(010-8664-5245)

선교

[박영주 선교사]

캄보디아

-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 김병스포 더여호수아 센터에서 시작된 주일에 배(현재까지 어린이 대상)와 평일 방과후 학습이 잘 이루어 지도록.
- 박영주 선교사에게 맡겨진 일들(대학교수, 배이스 책임자, 선교사회 수석 부회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 어린이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김승희 선교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만한 체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성민(아들)과 이제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다른 (딸)이를 지켜주시도록.

한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 졌음이라) -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발송 후 약 4-6개월 후에 작성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 급히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디모테를 통해 교회 상황을 살펴보니,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충만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무르익는 믿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들에게도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련하여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의 충돌로 인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 됨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압박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나눔] 신앙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나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궁극적인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고, 어떤 이들은 일상에서 성실하게 준비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친 대망으로 신앙이 왜곡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며 게으름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 주장하며 공동체에 의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영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가치가 세상에서 의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와 대조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반역적 메시지로 여겨져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림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앙적 걸음이 없이는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개인의 고집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눔] 평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의 삶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됨의 증거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 해석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 주님이 다시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